효제초등학교도서관
‘책이랑 꿈이랑’

도서관 가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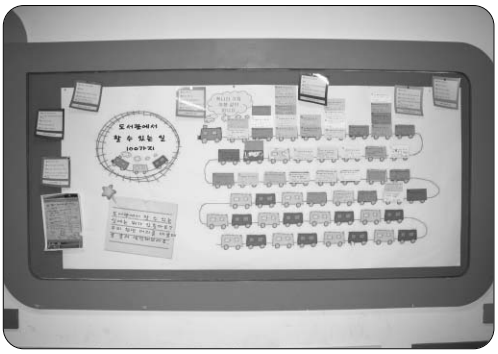
사무실을 나서 효제초등학교도서관으로 향하고 있자니 따뜻한 햇살이 창을 비추고 화려한 꽃들이 눈앞에 펼쳐질 때 비로소 봄을 실감했다.

시내 중심에 있는 도서관을 가보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 더군다나 초등학교도서관도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종로구는 복잡한 인상 때문에 이 복잡한 곳에 학교와 도서관들은 어디에 있을까 궁금했다.

도서관 입구

종로의 복잡한 거리를 지나 도착한 효제초등학교. 1890년에 설립되었으니 역사가 100년도 넘는 참 오랜된 초등학교이다. 우리가 막 학교에 도착했을 무렵 저학년 아이들은 수업이 끝난 탓인지 삼삼오오 짝을 지어 해맑게 웃으며 장난치며 교문을 나서고 있었다.

그런 아이들 틈을 지나 학교 안으로 들어갔다. 학교 안으로 들어가니 안내도가 있어 도서관이 3층에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다. 3층으로 올라가니 도서관입구가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었다. 공모를 통해 정해진 도서관 이름 ‘책이랑 꿈이랑’ 간판도 멋지게 걸려있었다. 도서관 입구에는 벽화를 비롯해,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일 100가지, 생각의 나무, 도서관 행사 안내판 등이 가득했다.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일 100가지 게시판

첫인상

도서관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점심시간 직후라 도서관 내부에는 아이들의 온기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조금 전까지 많은 아이들이 북적북적했으리라... 정재연 사서교사는 도서관을 정리하느라 분주했다. 먼저 정 선생과 인사를 나누고 정 선생이 도서관을 좀더 정리할 동안 도서관을 둘러보았다. 도서관을 둘러봤을때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은 동화가 그려진 블라인드와 벽화였다. 모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동화에서 그림을 가져왔다.(저작권을 해결하느라 힘들었지만 잘 해결되었다고 한다.) 서가 위, 창가 등에 올려진 아기자기한 소품들을 보니 도서관 구석구석 정 선생의 정성이 느껴졌다.

도서관 리모델링

잠시 도서관을 둘러본 후 자리에 앉아 정 선생과 막 이야기를 나누려는 순간 수업을 끝마친 아이들이 도서관으로 몰려와 또 정 선생을 에워싸 정 선생은 아이들 차지가 된다. 많은 아이들의 쉴새없는 요구에도 조금의 짜증도 없는 정 선생의 밝은 표정을 보니 아이들이 마냥 귀엽기만 한가보다.

우리가 방문하기 전에도 수업도중 한 아이가 의자에 토하는 바람에 도서관이 엉망이 되어 도서관을 치우고 있었다는데 정 선생의 표정은 행복해 보였다.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는 모습이란 저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종소리가 들려오자 몰려왔던 아이들이 한차례 빠져나갔다. 이제 도서관이 조금 한가해 졌다. 드디어 정 선생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정 선생도 정신없는 도서관의 분위기 때문에 미안해 했지만 '학교도서관'의 풍경에 대해서는 우리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에 웃으면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갔다.

효제초등학교는 정 선생이 몸담기 오래 전부터 이미 도서관이 있었다고 한다. 정확히 언제부터 도서관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1998년, 1999년 즈음

책 읽는 아이들

아이들에게 책을 골라주고 있는 정재연 사서교사

학교의 연구부장이 음악실, 미술실 등의 특별실로 이용하던 공간을 도서실로 개조하고 전산화 작업도 했다고 한다. 그런 탓에 정 선생이 처음 도서관에 부임해 왔을때 이미 도서관 분위기나 정리는 깔끔하게 잘 되어 있었다고 한다.

정 선생이 작년 3월 1일 정식사서교사로 처음 부임해와 효제초등학교에도 비로소 도서관을 책임질 도서관장이 생긴 것이다. 정 선생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학교도서관 사업에 지원해 리모델링 계획을 차근차근 세우고 준비해 갔다. 여름방학때부터 본격적으로 리모델링을 시작하고 학기가 시작되던 9월 18일 도서관을 재개관을 했다. 재개관을 하고도 도서관에는 손봐야 할 일들이 여전히 많아 사실상 도서관 리모델링은 작년 12월에 종료가 되었다. 도서관은 원래 있었던 도서관 자리인 본관 3층에 교실 2칸(복도제외)을 꾸몄기에 조금 좁은 느낌이 들긴하지만 아이들은 리모델링한 도서관을 무척이나 좋아한다.

책 읽는 아이들의 모습

도서관 운영

효제초등학교의 전체 학급수는 31학급(도움반 2학급), 전교생은 약 1,000명, 장서수는 복본을 제외하면 약 1만권 정도, 이용자는 하루 100명 정도, 평균대출자는 70명 정도 된다.

이용자가 아주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꾸준히 지속적으로 도서관을 찾는 아이들이 많아 도서관 운영은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었다. 도서관 운영은 정 선생과 자원봉사자의 활동으로 꾸려진다. 자원봉사자는 대학생 자원봉사, 명예어머니, 어린이사서등이 있다. 대학들에게서 신청을 받아 작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학생 자원봉사는 하루에 1~2명씩 돌아가면서 자원봉사 학생들이 대출 · 반납 · 배가의 기본적인 도서관 업무부터 대출증 만들기, 학습자료 제작 돕기, 문서 편집, 전산입력 등의 다양한 일을 한다. 명예어머니는 기존에 있었던 '명예교사제도'를 '어머니 명예교사제'로 바꾸어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어머니 독서회'로 명칭을 바꾸어 어머니들과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해보고자 계획하고 있다. 어린이사서는 4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로 구성이 되는데 어린이 사서는 쉬는시간, 점심시간, 방과 후에 아이들의 대출 · 반납을 돕고 저학년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시간도 갖는다.

저학년에게 책을 읽어주는 어린이 사서

도서관의 자랑거리

정 선생은 도서관의 자랑을 꼽으라고 하니 사서교사가 있다는 점을 첫 번째로 꼽았다. 그러면서 현재 초등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을 안타까워했다. 담임을 하지 않는 전담교사가 도서관을 지키고 있으니 도서관 운영에 집중할 수 있어 좋다고 한다. 정 선생은 두 번째로 도서분류가 잘 되어 있다는 점을 꼽았다. 그림책은 그림이라는 별도 스티커를 부착하고 전집류는 나라별로 나누며 픽션과 논픽션을 구분해 서가를 배치했다. 활용도가 높은 참고도서와 새로운 책 서가도 별도로 배치했다. 도서관 한쪽 벽면에는 '도서관에서 처음으로 만나는 책' 코너를 꾸며 도서관에 처음 오는 아이들이 도서관과 친해질 수 있도록 그림책 위주의 쉽고 재미있는 책들을 서가에 배치했다. 크기가 조금 작거나 크거나 한 책들은 바구니에 별도로 배치해서 손쉽게 꺼내볼 수 있도록 배려했다.

마지막으로 양질의 장서가 있다는 점을 꼽았다. 교내에 구성된 도서선정위원회는 교장, 교감, 정보부장, 각학년 대표교사 6명, 사서교사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서선정위원회는 책 구입과 관련해 의논할 일이 생기면 먼저 사서교사가 도서관에서 구입가능 한 도서목록리스트를 만들어 회의 자료로 제공하

그림스티커를 부착한 책

아기자기한 모습의 서가

고 이 자료들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선정위원 모두가 대상에 오른 책을 한 권씩 토론을 통해 구입 여부를 정하게 된다. 이들은 도서선정뿐 아니라 도서관운영위원회도 겸하고 있어 도서관에 관한 문제가 생길 때도 서로 의논해 가며 도서관 운영을 돕고 있다. 이들은 도서관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후원자들이다.

이용이 쉽도록 바구니에 담아놓은 책들

도서관 운영 프로그램

전교생을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교육 및 독서교육을 한다. 1,2학년은 3월과 9월 두 차례, 3,5학년은 9월~12월, 4,6학년은 4월~7월 각각 실시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호응도가 높다. 또한 한 달에 두 번

도서관 활용수업 모습

수요일에는 방과후에 미리 신청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이야기 시간'을 마련했다. 도서관 활용수업은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고급적인 것까지 모두 다루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도서관 활용수업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편은 아니라고 한다. 국어사전을 반으로 단체 대출해주는 일, 수업진도와 관련해 과제를 해결할 때 도움을 주는 일, 교사와 학생이 함께 와서 수업을 할때 수업보조를 하는 일, 고학년에게 색인사용법을 알려주는 일, 독서과목 시간에 책 읽어주는 프로그램 마련 등다양한 형태로 진행된다. 간혹 시간이 허락하면 아이들과 도서관 견학을 가거나, 슬라이드 보여주기, 책만들기 프로그램 등도 진행한다.

도서관의 미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지금 학교도서관에는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초등학교도서관의 현실은 더욱 그렇다. 정 선생도 최선을 다해 도서관을 잘 운영해 나가고 있지만 인력부족 문제는 매번 느낀다고 한다. 장난이 한창 심한 아이들을 잘 통제하고, 도서관 청소부터 고급 서비스까지 혼자 맡아야한다는 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책임감, 봉사정신이 없다면 감당하기 힘든 일이다. 지금은 자원봉사자가 있어 도서관 운영이 조금 수월해 졌다고는 하지만 도서관 전체 운영에 있어 일일이 사서교사의 손을 거쳐야 하는 일이 대부분이라 학교도서관의 인력부족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하고 있을것이다.

효제초등학교도서관은 지금까지는 기본장서 확충과 핵심자료 구축, 주제별 자료 구축에 많은 관심을 쏟아왔다고 한다. 2007년에는 도서관 이용지도 시간을 늘려 도서이용지도와 책소개 등을 더욱 활성화 시키고자 한다. 2008년에는 도서관 이용지도 심화과정을 만들어 책읽기 관련 내용과 도서관 활용수업에 더욱 역점을 두고, 학부모 교육도 함께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2009년에는 도서관활용수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학부모 교육도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한다. 또한 가능하다면 공공도서관과 공동으로 '어린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모임'을 추진해보려고 한다.

앞으로 더 좋은 학교도서관, 훌륭한 학교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 선생처럼 의욕적이고 아이들을 사랑하며 책임감이 투철한 사서교사가 각 학교도서관마다 최소 한 명씩은 있어야 할 것이다. 아직 학교도서관이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았지만 열심히 현장에서 학교도서관을 지켜주는 많은 이들의 노력이 있기에 학교도서관의 미래는 더욱 밝을 것이라 확신한다. (글 : 심효정, 사진 : 최인경)